

학문의 균형발전 이끄는 국립대... 인문학-기초과학 융합연구 활기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1)기초-특화 학문 육성

나혼이의 '테스형(소크라테스)'이 연일 인기몰이다. 하지만 정작 대학 강단의 소크라테스 강의는 크게 위축돼 있다. 인문학의 상징인 철학이 취업과 실용학문의 조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의 40여 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철학과'가 있는 곳은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 단 두 곳뿐이다. 양해립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기초 인문학 축소 추세가 이대로 10년을 더 가면 학문 후속 세대가 단절돼 교양 인문학마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문의 균형발전이 국립대의 주요 미션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중점 과제의 하나로 삼은 이유다. 충남대 철학과와 학술대회와 초청특강 등에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전국 39개 국립대가 참여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이영석 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국립대가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위해 융합 연구, 대중강좌 개최, 지역학 지원, 학술자원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며 "이런 활동들은 관련 학문의 진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기여,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혁신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대(총장 차정인)의 자연과학 강연



지난해 열린 부산대의 자연과학 대중강연 '알쓸자이'. 800여 명의 시민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충남대 지질학과와 특수실험실습 장면. 학부생들은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쌓아 대학원 진학 의지를 다진다. 제주대 지구해양학과가 우도 초·중학생들과 함께 우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했다(왼쪽부터). 부산대·충남대·제주대 제공



'알쓸자이(알고 보면 쓸도 있는 자연과학 이야기)'를 아이와 같이 수강한 40대 주부(부산 동래구)는 "엄마로서 감사했다"고 했다. 23차례 강연이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알쓸자이는 바이러스, 줄기세포, 펩토세계, 중력파, 산업수학 등 말랑말랑하지 않은 주제를 시민 눈높이로 녹여냈다. 경청한 시민 800여 명의 만족도는 92.1%였다. 경상대(총장 권순기)는 진해도서관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GNU 찾아가는 인문강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기초과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 활성화를 꾀한다. 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된 사회문제해결형 융합연구 7개 가운데 화학과 석사과정 박종민 씨의 기후변화

취업 중심 실용학에 밀린 기초학문 39개 국립대서 융합연구-강좌 등 학문 육성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부산대, 시민 대상 과학 강연 개최
충남대, 자연과학 대학원 진학 독려
강원대, 지역학 대회 열고 연구협업

논문이 최근 완성됐다. 지도교수인 정성화 교수(화학과)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잡는 고효율 흡착제에 대한 연구"라며 "향후 낙동강 등의 강물 오염 시 불순물 제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총장 이진숙)의 '사제동행 특수실험실습'은 자연과학 대학원 진학률을 높인다. 전민용 물리학과 교수는 "물리학, 화학, 해양학, 지질학 등 기초과학 분야 3, 4학년생들이 방학 동안 대학원생 및 교수와 같이 인턴 연구 형태로 대학원 과정의 실험실습을 진행하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쌓고 진학 의지를 굳힌다"고 전했다. 충북대(총장 김수갑)는 기초·보호 학문 분야 대학원생 260여 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전공자 확보와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대(총장 김현영)는 2018년부터 해마다 '강원학 대회'를 열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강원도 산하 강원연구원, 아시아강

원민속학회, 동해안 바다연구회, DMZ HEIP 센터, 김유정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면서 '대학-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협업 플랫폼을 형성해 융·복합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북대(총장 김동원)는 간재학연구소 등을 통해 침체하는 '호남학' 연구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로보연구소 등 학내 9개 연구소의 장비(145개)를 지역의 외부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개방하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획득했다.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제주대(총장 송석인) 지구해양학과가 맡았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 학과 주관의 우도(세계지질공원) 자연보호 및 관리 교육을 받은 초·중학생들은 소감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우도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국립대가 지역혁신 이끌도록 전폭 지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인터뷰

1500억원 투입한 국립대 육성사업 교육·연구수준 끌어올리는 데 주력

“국립대는 ‘국립’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대학’으로서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혁신을 이끌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은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립대는 지역의 교육과 혁신 거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내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극약 처방이다.

그중에서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국 39개 국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800억 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부터 15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차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공유·협력·상생에 기반한다.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교육 혁신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

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수도권 대학 이상으로 높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낮은 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

다.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도 고도화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고교생 지원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불균형도 줄였다. “아무래도 국립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문화 환경이 열악하다. 지역 중고교생의 진로·직업 체험 교육과 발달 장애 성인에 대한 비학위 과정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며 “우수 성과는 국립대학 간 공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학점교류’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박 차관은 “9개 거점 국립대가 올해 2학기 공동 교육혁신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3000여 명이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도 경쟁보다는 공유·협력·상생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주최 | 중소기업진흥기부회 | 환경부 | 주관 |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알립니다

‘2020 공간복지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11일까지 생활 밀착형 공간 창출 우수사례 접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을 공모합니다. 공간복지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영도서관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복지를 말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복지 확산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격: 전국 기초자치단체
- 접수: 홈페이지 (dbr.donga.com/space) 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공모 지원서, 공적 세부자료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pace@donga.com)
- 마감: 2020년 11월 11일(수) 오후 6시
- 시상: 2020년 11월 25일(수)
- 주최: 동아일보 채널A
- 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문의: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사무국 (02-6380-7263)

전공 살려 봉사하고 주민에 법률서비스... 국립대 지역맞춤 공헌 강화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2>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15일 오후 2시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제주대(총장 송석연)의 윤영민 수의학과 교수(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가 이끄는 봉사단이 들어서자 유기견 160여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봉사단은 개들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줬다. 기생충 약도 먹이고, 중성화 수술까지 했다.

적잖은 상태로 왔던 유기견들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제주 유기견 암마'로 알려진 보호소장이 이묘숙 씨와 윤 교수 일행의 손길 덕이다. 이 씨는 "매달 방문하는 봉사단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큰 힘이 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 교수는 "제주에 인구가 대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교육부의 국립대 육성사업 지역 기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 봉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39개 국립대가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자원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일조한다. 이런 역할은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팔 걷어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지난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 및 생활법률 강좌'를 열어 사형제 존폐 문제와 의료분쟁, 이혼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차례의 강좌에 1008명이 몰렸다. 이기욱 리걸센터장(교수·형사법)은 "법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제주대 수의학과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제주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39개 국립대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윤영민 교수 제공

대학 자원 활용해 지역현안 해결 공공성-경쟁력 강화 일등공신

제주대, 유기견 봉사단에 예산지원 지역민 위한 생활법률 강좌 열거나 시작장애인 미술투어 여는 대학도

와 준법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는 지난해 강릉문화재단과 함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기획·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걷는 밤 강릉바다' 등의 기획에는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공주대(총장 원성수) 중앙도서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기적의 책읽기 1박 2일 독서여행을 실시했다.

한국복지대(총장 성기창)는 지역 초중고교생과 주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격증 과정에는 42명이 수강해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메이커 스페이스'(열린 제작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학 측은 "장애 공감문화 확산과 장애인 감수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 7차례 실시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교육'은 109명이 참여해 91.9점의 만족도를 자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과학창의 융합교육(STEAM)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의 의미를 살려 학생과 학부모, 군인가족과 복지관 장애인 학생들도 찾아갔다.

●세대 장애 넘어 강좌, 교육 풍성

충북대(총장 김수갑)는 지역 상생의 기초가 되는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SCR(Service, Culture, Resource) 공동체 나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다. 학생 참여형 사회봉사, 지역 초중

고교생 문화교육 프로그램, 대학 시설과 장비 지역 공유 등이다. 인근 주민 이정규 씨는 "대학이 무료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대학 인프라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실감한다"고 했다.

경인교대(총장 고대혁)가 지난해 1학기 마련한 'Making is Thinking-재료탐색과 스토리텔링' 전시회는 특별한 관람객들이 찾았다. 평소 미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들이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작품을 손으로 만지며 작가의 숨결을 느끼는 '시각장애 학생 대상 터치투어'를 마련했다. 안근희 도서관장(미술교육과 교수)은 "대학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특성화대인 한국해양대(총장 도덕희)는 부산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꿈나무캠프와 해양과학영재캠프,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을 열었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과학꿈나무캠프는 대학 세미나실과 체육관, 수영장 등을 활용했다. 솔라보트 만들기, 해양건축, 생존수영, 해양드론 교육·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는 9.36점(10점 만점 기준)이었다. 해양과학교실 측은 "한국해양대 교수들이 부산지역 중학교를 찾아가 현장에서 해양과학·문화에 대해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충천교육대(총장 이환기)는 찾아가는 '창·체(창의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 천체관측 프로그램과 작은 음악회 등을 열었다. 전주교육대(총장 김우영)는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몽(夢)KIDS 교육캠프'를 열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비교원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전국 국립대 지역사회 기여 사업		
구분	대학(가나다순)	주요 세부 사업
거점 국립대	강원대	학문분야 특화 지역인재 양성
	경북대	지자체 협업 기반 지역현안 해결
	부산대	멀티 캠퍼스 지역상생 프로그램
	경상대	지역현안 기반 Social Lab 사업
	충남대	대학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특화발전모델 구축
	전북대	지역 속의 대학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경남과학기술대	사회적경제 연계 전공 운영 및 확산
	공주대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 공유
	군산대	책과 함께 군산 문화 알아보기
	금오공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생애 전 주기 교육 지원
지역 중심대	목포대	사회적 배려 대상 지역주민 상생 프로그램 운영
	목포해양대	Marine 4.0 해양안전트랙 신설
	부경대	지역발전의 대학참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서울과학기술대	지역사회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순천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오픈 커뮤니티 구축
	안동대	지역특화인재 Force-Up
	창원대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 다문화사회 조성
	한경대	미래농업형 인재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술 마련
	한국교통대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사회 개방
	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고등교육 복지 인프라 강화
교원 양성대	한국복지대	Well Together 지역중심 공헌 사업
	한국체육대	KNSU 스포츠클럽 2.0
	한밭대	4차 산업혁명 특화 교육 프로그램
	공주교대	지역 교사 재교육 & 지역 특화 예비교사 교육
	광주교대	다문화 및 독도 체험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대구교대	프로젝트 기반 영재 프로그램 사례 공유
	부산교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 나눔
	서울교대	지역사회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주교대	지역사회 기반 농촌 봉사 활동
	진주교대	사람을 치유하는 책의 힘 독서멘토링 프로그램
청주교대	미래형 초등 교실 선도 모형 구축	
춘천교대	교육대학 특화형 지역사회 주민 행복감 증진	
한국교원대	학생 주도형 재능 나눔	

우리가 건강 국가대표입니다!

길어지는 집콕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요즘
거리두기,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안전교육 받는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공공도서관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해마다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의 유형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늘렸다. 행안부 측은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은 약 9만4000곳으로,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약 7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어린이안전 실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 모습은?

행안부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발간

행정안전부가 '새천년(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해 담은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정부 43개 기관 공무원 57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새천년 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이들이 바라보는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 성과 평가에 대한 생각도 다뤘다. 아울러 선배 공무원의 시각에서 새천년 세대 공무원의 특징과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생각, 세대 차이에 관한 솔직한 의견 등도 실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국립대, 지역대학과 공동수업 개발하고 中企 산학협력 강화 앞장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4>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충북대 재학생 A 씨는 올해 1학기 계절(원격) 수업으로 청주대 교양 과목인 '광고로 배우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수강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는데 마침 계절수업에 개설되자 일찌감치 수강 신청을 했고 강의를 이수할 수 있었다. A 씨는 "다른 학교의 과목까지 수강 선택권이 넓어져 매우 좋다"며 "다음 학기에도 계절수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계절수업 대학 간 공동운영 확산

충북대 학생이 청주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충북대(총장 김수갑)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충북지역 11개 대학이 계절수업을 공동운영한 덕분이다. 2018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3개 대학이 추가 동참했다. 올해는 1학기에 충북대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의 이해' 등 4개 대학이 개설한 6개 과목을 11개 대학 439명이 수강했다.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은 "대학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큰 편"이라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 공동 운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손을 잡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교원과 학생 교류, 실험실습기재 공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져온 성과다.

● 온라인 수업 콘텐츠 무료 개방

권역별 대학들은 수업 콘텐츠를 공유하고 각종 캠프와 워크숍을 공동 진행하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지난해 63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방해 6개 대학 339명이 수강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

충북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등

11개 지역대학 계절수업 공동운영

경북대, 공동 창업동아리 캠프 운영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대회 개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자 1학기에만 방송대 정규 학부과정 555개 온라인 콘텐츠 및 전자교재를 무료 개방했다. 수강 인원은 30개교 1만872명에 달했다.

부산대(총장 차정인)는 지난해 11월 부경대, 동아대와 함께 부산지역 문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지역문제를 주제로 토론 실력을 겨뤘다. 부산지역 7개 대학은 대학생 정책참여 콘테스트를 개최한 뒤 여기서 선정된 8건의 정책 제안이 부산시에 전달됐다.



지난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경북대, 계명대, 금오공대, 안동대의 연합 창업캠프. 이들 대학은 공동창업 캠프와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 제공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지난해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동 창업동아리 캠프를 운영했다. 3개 대학 재학생 49명이 참가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또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과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열고 장애대학생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도 했다.

서울교대(총장 임재성)는 서울 소재 4개 국립대와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강의 자료 제작과 4개 교과목 동영상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

전남-충청-강원 지역 대학들

교육혁신센터 세우고 사례 공유

부경대, 중소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금오공대, 지역문제 연구에 힘써

● 공동교육혁신센터 성과 가시화

대학들이 권역별로 교수 학습 지원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혁신센터 구축 사업도 활발하다.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광주교대와 함께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10월 공동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들은 교수 역량 진단 도구 개발, 기초학력 증진 프로젝트,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등에 힘을 합치고 있다.

충청지역 8개 국립대학도 지난해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원대(총장 김현영)와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 역시 지난해 8월 강원권 공동혁신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 대학은 교육혁신 포럼 개최, 혁신적 교수 학습법 공동연구, 학생 수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도

"쉽게 접하기 힘든 열분석기와 원소분석기의 원리와 응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부경대(총장 장영수)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열린 산학관(産學官) 통합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김모 씨의 얘기다. 부경대가 지역사회 및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가의 첨단 연구분석 장비를 통해 계측과 분석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술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어준다. 부경대 관계자는 "기업체 및 중소기업과 산학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오공대(총장 이상철)는 '지역 공공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구미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낙동강 수질관리 및 슬러지 자원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올해는 물순환을 통한 구미산단 그린산업단지화 방안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수행 중이다.

순천대(총장 고영진)는 지역 초중생의 글로벌 역량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30명을 선발해 원어민 강사와 1대 3 영어회화 화상수업을 무료로 진행 중이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외국인 유학생 20명과 초중생 20명을 1대 1로 연결하는 화상 버디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영어회화 화상수업에 참여 중인 용당초등학교 5학년 정선우 군은 "실력이 검증된 원어민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무료로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영어회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K-MAS

라이브마켓

2020 12.19~27. 9일간

가치삼시다 플랫폼
삼청동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기사 본문 외 사례)

구분	대학(가나다순)	주요 세부 사업
거점 국립대	경상대	4차산업 전문가 역량강화 디딤돌 사업
	전남대	호남권역 6개 국립대학 공동사업
	전북대	산학협력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주대	학생회 중심의 도내 대학 공동기획프로그램 운영
	충남대	세종의학바이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남과학기술대	지식협동조합 설립 및 지식공유지원 관리
	공주대	지역융합 창업 아이디어 캠프 운영
	군산대	지역과 함께하는 황룡골 어울림 스포츠 교류
	목포대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두드림 운영
	목포해양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중심대	서울과학기술대	육군사관학교와 승마, 수영, 골프 학점교류 추진
	안동대	지방소멸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창원대	창원스마트산단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경대	교직원 교류를 통한 대학 행정업무 효율화
	한국교통대	지역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한국복지대	지역 중심 창업보육센터 구축
	한국체육대	스포츠 과학기반 창업 인큐베이팅
	한국해양대	해양 꿈나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밭대	대학-지자체 간 지역공헌 상생협의체 운영
	경인교대	교사 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교원 양성대	공주교대	세종시 초등학교 대상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주교대	교사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교대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부산교대	초등학생 위한 통합 방과후 교육센터 운영
	전주교대	예비교사 소규모 학교 현장체험
	진주교대	초등 배움 중심수업 나눔 한마당 운영
	청주교대	전국 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 개최
	춘천교대	작은 학교 참관 실습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원대	소외지역 학교 입학 컨설팅

